

종교개혁 전통과 한국 교회의 미래

이 양 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

I. 서언

종교개혁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 루터나 칼빈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구에 대해 회의적인 경우가 있다. 이들이 다가오는 21세기에 얼마나 현실적인 호소력이 있을 것인가가 그 회의의 발단이 된다. 의외로 보수적 교단에서도 더 이상 칼빈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21세기에도 루터나 칼빈의 사상이 유용하다고 본다. 인류문명이 참으로 돌아가야 할 고향은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종교개혁적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II. 종교개혁의 유산

1. 복음적 신앙

1) 루터

루터는 복음적 신앙을 깨닫는 순간 자기는 하늘나라에 온 것 같았다고 하였다. 놀라운 환희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라는 한 단어에 의해 맡겨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중언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박사들의 관용적 용법에 의해 그것을 그들이 형상적 혹은 능동적 의라고 부르는 것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즉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신앙의 현실에 모양을 주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다. 크리스천의 목적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이루어야 할 대상이므로 능동적인 대상이다. “그것에 의해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불의한 죄인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질 것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의롭지 못한 사람은 처벌하신다.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는 중에 교의를 거닐다가 주변에 벼락이 떨어져 쓰러지는 남다른 체험을 했다. 이때 그는 “성 안나여 나를 구해주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하고 외쳤다. 하나님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중세 사람의 피할 곳은 성 마리아나 성 안나였다. 루터의 이 경험은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러나 무서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가 그에게는 고민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그의 중요 대상이었다.

“나는 죄인을 처벌하는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중요했다. 마침내 내가 밤낮으로 명상했을 때 하나님이 자비를 보여서 나는 단어들의 연결에,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내 주의를 돌렸으며,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 의해 사는 의임과 그리고 바울이 뜻하는 것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수동적인 것 다른 말로 하면 자비로운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 즉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는 즉시 다시 태어나서 열린 문들을 통해 낙원 바로 그 자체에 들어온 느낌을 스스로 가졌다.” 루터가 바울서신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의롭지 못한 죄인을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나에게 전가된 의이고 나를 의롭게 만드는 의라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루터는 성경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되었다. 성서의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은 이 놀라운 은총에 감격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루터가 생각한 복음의 본질이었다. 중세기 신학사상에서는 너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은총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은총을 보태어 주어서 의를 완성시킨다는 것이었다. 루터는 이러한 의를 추구했지만 어떠한 의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은총으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그가 말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사상이다. 이때부터 그는 카톨릭 교리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성찬을 제물로 바치는 관행을 거부하였다. 성찬을 은혜의 통로로 보았는데, 이것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세기에 신비주의자들은 고요한 명상 속에 하나님과 하나되려는 노력을 수행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놓고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보았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다. 위로부터 소나기처럼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적 종교이다.

2) 칼빈

칼빈은 이같은 루터의 사상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 그는 '종의 종교'와 '아들의 종교'라는 사상을 폄하했는데, 마지못해 따라가는 율법적 종교가 아니라 자기가 아무리 결함이 많다 할지라도 자신의 행위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인정해 주는 아들의 종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향해있지 않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자기들의 마음의 순종과 자발성만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은 기꺼이 받아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칼 바르트는 '종교와 기독교적 신앙은 다르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타당하다. 기독교적 신앙은 루터나 칼빈이 발견했던 복음의 진수에 있는 것이다.

2. 가정의 신성성

1) 루터

루터는 "결혼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간이 되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인간이라 불리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는 원래 수도사였으나, 그는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수도원을 뛰쳐나오게 되었다. 수녀들은 보호자가 데리고 가야하는 것이 당시 법이었으므로, 루터가 이때부터 짝을 지어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그러는 가운데 결국 캐더린 폰 보라라는 수녀와 자신도 결혼하게 된다. 처음엔 사랑하지 않고 결혼했는데 점차 사랑하게 되었고, 수도사와 수녀가 결혼하면 과물을 낳는다는 속설을 깨고 아주 건강한 아기 요하네스를 낳았다. 그는 이때부터 가정의 가장으로 6남매를 기른다. 43의 나이로 26세의 보라와 결혼했던 루터는 부인을 무척 사랑했다. "나는 나의 카티를 프랑스와 베니스하고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아내에게 "카티,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정직한 남자와 결혼했소. 당신은 황후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루터는 자신의 큰 저택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다. 보라는 이들을 접대하고 섬기는 독일 가정의 모범을 보였다. 루터는 "성적 욕망은 신적인 에너지이다"라고 주장하고,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어떤 종교에서든 결혼을 경멸하고 독신보다 낮은 단계라고 치부해 왔는데, 루터는 그러한 가정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은 사람이 되었다.

2) 칼빈

그는 엄격한 이로 알려져 있으나, 아내 사후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가 아내를 사랑했던 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내 생애에 훌륭한 동반자를 잃었소. 그녀는 불행이 찾아왔을 때에도, 추함이나 비참함 가운데에서만 아니라 죽음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자발적 동반자가 되었던 것이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슬픔에 완전히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오. 만일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피곤한 자에게 활기를 주시는 그 분이 하늘로부터 내게 손을 내밀지 않으셨더라면 분명히 꺾일 수밖에 없던 내게도 힘주시기를 빕니다.”

칼빈 연구자들 사이에는 그의 자녀 수에 대한 논란이 많다. 자크라는 아들이 한 명 있었다는 견해도 있는데, 그의 기록 가운데 ‘나의 어린 딸이 지속적인 열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딸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어도 2-3명의 자녀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부부금술이 좋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3. 민주주의적 이상

1) 루터

“나는 사도시대 이후 세속정부를 나만큼 분명히 서술하거나 높이 찬양한 사람이 결코 없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루터는 종교에 속박된 정치를 해방시킨 사람이었다. 정치의 자율화 선언이 루터의 크나큰 공헌이다. 또한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 사제들로 성별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영적 계급에 속하며 그들 사이에는 직책의 차이 외에 다른 아무 차이도 없다”는 루터의 만인사제설은 역사상 처음으로 온 인류의 정신적 평등성을 주장한 내용이다. 회랍에도 민주주의가 있었으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의 민주주의였다. 아테네에도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평등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루터에 와서 정신적 평등이 처음으로 주장되었다. “그리스도인은 만물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중세기에는 영주나 주교한테만 ‘lord’라는 호칭이 주어졌다. 그러나 루터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lord’라고 선언했다. 종교개혁 이전 1517이전에는 독일에는 분트슈운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루터로 인해 농민 전쟁은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루터가 말한 자유, 평등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알게되면서 다시 농민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2) 칼빈과 칼빈주의

「기독교강요」(1536년판)에 의하면, “만약 당신들이 정부형태들을 상황을 떠나 그 자체로 비교해 본다면

그것들 중 어떤 것이 유용성에 있어서 탁월한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라는 칼빈의 언급이 있다. 이것은 그가 왕정, 귀족정, 민주정 가운데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를 확연히 알 수 없는 언급이다. 그러나 1543년에 와서 칼빈의 생각이 바뀐다. "만약 철학자들이 논의한 정부의 세 가지 형태를 그 자체로 살펴본다면 귀족정이나 귀족정과 민주정이 복합된 형태가 다른 형태보다 탁월함을 나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국민들이 최선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이 정치를 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형태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후엔 더욱 뚜렷한 자기 입장을 세운다. "만약 우리가 법관과 관료를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면 그것은 탁월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시키며 선한 양심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즉 선거에 의해 관료를 선택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인간의 정부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우리는 자유국가에 사는 것이 제후 아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유 없이 명령을 내리는 제후를 가지는 것보다 선출받아 그 직임을 수행하며 법을 준수하는 통치자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지지할 만한 일이다." "자기 나라를 독재에서 해방시키는 것보다 더 숭고한 행위는 없다. 심지어 철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듯 칼빈의 사상은 갈수록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경향으로 나아간다.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 연구가 벨로크는 "칼빈이 없었으면 크롬웰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자기 나라를 독재에서 해방시키는 것보다 더 숭고한 행위는 없다는 선언이 크롬웰에게 감동을 주어 독재를 하던 찰스를 처형하고 왕정에서 공화정을 실시한 도덕적 용기를 주었다고 본 것이었다. 민주주의는 칼빈주의의 정치적 이상이었다.

4. 자본주의의 정신

1) 루터

재세례파는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공산주의를 택하고 성경 이외의 모든 책들을 소각시켰던 급진적 종교운동이었다. 이에 대해 루터가 내건 대안은 자본주의적 정신과 복지주의 이념이었다. "사고파는 일이 필수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매매는 없앨 수 없으며 특히 상품들이 필수적이고 명예로운 목적에 기여할 때 매매는 기독교적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다." 루터는 상인이 상품의 비용에 참가하는 이윤의 폭을 결정할 때 그 상품에 투입된 시간과 노동의 양을 계산하고 다른 직업에서 일하는 날품근로자의 노력과 비교하고 그들이 받는 일당을 계산하여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윤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이자를 받는 것도 인정했다. 그는 요셉이 애굽 백성들에게 곡물을 거저 준 것이 아니라 돈이나 짐승을 받고 주었으며, 나중에 전지를 받고 준 다음 전지의 수확 중 1/5을 상납하게 한 점을 중시했다. 루터는 요셉의 행위는 세상적 국가에서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세례파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했다. "세계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

량에 따라 통치되어서는 안 되고 또 될 수도 없으며 엄격한 법에 의해 칼과 힘으로 통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후에 등장한 미국의 사회복음운동은 그의 견해에 의하면 불가능한 것이다. “만약 단지 사랑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먹고 마시고 쉽게 살게 될 것이고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려 할 것이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아무도 살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는 또한 농민들의 공산주의사상을 비판한다. “우리 농민들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공유하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자신들이 갖기를 원한다. 그러나 복음은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행한 것 같이 자유의지로 재산을 공유하는 경우 외에는 재산을 공유하지 않는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우리의 광적 농민들이 광기에 차서 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공유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자신들의 재산을 공유했다.”

2) 칼빈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현대 자본주의는 칼빈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 이래로 많은 반대 의견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막스 베버가 주장한 칼빈주의와 칼빈의 칼빈주의는 다르지 않다. 막스 베버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이 칼빈주의를 대변한다고 말한다. “시간은 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의 채권자가 당신의 망치소리를 새벽 5시나 저녁 8시에 듣는다면 그는 지불 기일이 6개월이나 연장된다 해도 만족해 할 것이다..... 5실링 가치의 시간을 허비하는 자는 5실링을 상실하는 것이다. 5실링을 바닷물에 버린 것과 마찬가지이다.” 프랭클린의 이 말은 근면을 강조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칼빈의 말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게으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손발을 주었고 산업을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할당된 짧은 삶의 시간을 볼 때 우리는 나태 속에 빈둥빈둥 지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살았다. 칼빈은 마지막 죽기 몇 년 전부터 몸이 많이 쇠약해져 병석에 누워있었는데도 그냥 누워있지 않았다. 주위에 제자를 불러놓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불러주어 저작 활동을 계속했다. 칼빈주의는 이렇게 쓰여진 작품이다.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쓴 것이다. 병문안 왔던 이들이 만류하자 칼빈은 “나는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감동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돈은 돈을 낳지 않는다고 말한 성 암브로스워 크리스소스툼의 이론은 내 판단에는 너무 피상적이다.” 성 암브로스워와 성 크리스소스툼에 의하면 크리스천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돈은 돈을 낳지 않기 때문이다. 곡식 하나를 땅에 심으면 가을이 되면 추수하게 되어 몇 배의 수확을 거두지만 돈은 아무리 많은 금액도 그

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세까지의 이론이었는데 칼빈은 이 이론을 뒤집는 주장을 했다. “확실히 돈을 금고 속에 넣어두면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동들도 알고 있음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자는 이 돈을 한가하게 간직하여 아무 소득도 얻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윤은 돈 자체로부터 오지 않으나 그것이 유통됨으로써 온다.” 서양의 역사에서 이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밝혀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돈에는 증식성이 없다는 주장이 지배를 했다. 이에 이론적으로 반박한 이가 바로 칼빈이다.

칼빈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했다. “각 개인이 자기의 사유재산을 갖도록 허용하는 시민적 질서가 문란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재산의 소유권이 인간들 사이에서 구별되고 개인적이 되는 것은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광신주의자들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구절에 대한 건전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들은 재산의 코이노니아를 주장하는데 그것에 의해 모든 시민적 질서가 전복된다. 이 시대에 재세례파가 소요를 일으켜 왔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의 재산을 한 덩어리로 모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공산주의적 재세례파를 비판했다.

5. 복지사회의 이념

1) 루터

“곤궁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섬김은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길은 불쌍한 이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아무도 구걸하러 가서는 안 된다. 모든 도시는 그 도시의 가난한 이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도시가 너무 작으면 주위에 있는 촌락들이 기부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전교구나 마을들에 있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고아들은 그들이 일할 수 있고 자기들의 빵을 벌 때까지 관리들에 의해 공동금으로부터 교육 및 물질적 필수품들을 제공받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걸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루터는 국가가 그들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2) 칼빈

칼빈은 루터와 달리 가난의 문제는 국가가 아닌 교회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가난한 사람들을 둘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시험하고자 하며 우리 안에 친절함이 있는지 아니면

야수들처럼 잔인함이 있는지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수입을 거두기 위해 수납인 혹은 대납인을 보냈기 때문이다.” 칼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데, 부유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시험하는 것이다. 칼빈은 교회 수입을 4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법들에는 교회 수입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교직자, 가난한 자, 교회 및 다른 건물의 보수, 가난한 나그네나 가난한 본토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1/4은 성직자를 위해서, 1/4는 교회 유지를 위해서, 1/4은 교회 안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1/4는 긴급한 구호의 요청이 있을 때 구제하기 위해 예비비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 수입의 적어도 절반은 가난한 이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면에서 칼빈의 생각은 성찬 금그릇을 녹여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우리 하나님은 먹거나 마시지 않기 때문에 잔이나 그릇이 필요없습니다”라고 말한 고대 교회의 아카키오스와 암브로스 감독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교회가 금을 가진 것은 간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교회가 가진 모든 것은 곤궁한 자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교회 헌금은 불쌍한 이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Ⅲ. 종교개혁 유산과 한국 교회의 미래

기독교는 1920년부터 급속성장했는데, 2천년엔 20억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이슬람은 2천년엔 12억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무종교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2천년 10억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카톨릭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개신교는 2천년에 가까워질수록 전세계적으로 성장폭이 1.4%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의 조사에 의하면, 84년엔 기독교 17.2% 불교 18.8%, 89년엔 기독교 19.2% 불교 20.9%, 98년엔 기독교 20.3% 불교 18.3%로 그 성장률을 보이는데 이것은 계속되고 있는 개신교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은 수의 신자를 갖게 된 것은 1998년부터의 일이다. 이것은 세계에 유래가 없는 일이다.

한국에서 개신교의 사명은 막중하다. 세계 개신교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세계 교회의 중심은 이동해 왔다. 문화의 중심도 따라서 이동해 왔다. 앞으로 한국은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한 이상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복음적 신앙, 가정의 신성성, 민주주의적 이상, 자본주의의 정신, 복지사회의 이념은 21세기 우리 한국 교회가 실현해야 할 목표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